

# 알기 쉬운 회계 첫걸음



서울시립대학교 김경태 교수





## 5주차. 기업의 성적표, 손익계산서

~ 기업의 성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? ~

# ●●목차 / contents

- 1 수익과 비용의 이해
- 2 손익계산서의 구조와 내용 I
- 3 손익계산서의 구조와 내용 II
- 4 손익계산서 정보와 의사결정





# ●● 학습목표 / Learning Objectives

- 1 학습자는 수익과 비용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
- 2 학습자는 수익, 비용과 기업의 성과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
- 3 학습자는 손익계산서의 구조와 구성 내용들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





## 5주차 1차시

### 수익과 비용의 이해

-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와 함께 **손익계산서**와 같은 다른 정보들도 있음
- 재무제표의 내용을 표시하는 구성 요소로서 자산, 부채, 자본과 함께 **수익**과 **비용**도 있음
- 재무상태표: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로서 자산, 부채, 자본에 해당하는 모든 계정의 잔액이 표시
- **손익계산서(income statement)**: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**성과**를 나타내는 재무제표

## ●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어떤 구체 **정보**에 가장 **큰 관심**을 가지겠는가?

1월 30일의 재무상태표

재무상태표			
(주)세연컴퍼니		20X1.1.30.	
자 산		부 채	
현 금	1,360만원	은행차입금	1,050만원
주 식	0만원	자 본	
임차보증금	300만원	설립자본	1,000만원
자동차	700만원	벌어서 늘어난 몫	310만원
자산 합계	2,360만원	부채와 자본 합계	2,360만원

출처 : 기업정보와 회계(2022), 창민사

## ●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항목(계정)으로 '벌어서 늘어난 몫'을 선택

1월 30일의 재무상태표

재무상태표			
(주)세연컴퍼니		20X1.1.30.	
자 산		부 채	
현 금	1,360만원	은행차입금	1,050만원
주 식	0만원	자 본	
임차보증금	300만원	설립자본	1,000만원
자동차	700만원	벌어서 늘어난 몫	310만원
자산 합계	2,360만원	부채와 자본 합계	2,360만원

출처 : 기업정보와 회계(2022), 창민사



- '벌어서 늘어난 몫'이라는 항목의 변동(증가 또는 감소)은 말 그대로 기업이 벌어서 얼마나 늘어났는가, 즉 해당 기간 동안의 기업의 성과를 의미
- 기업의 목표가 '경제적 이윤 추구의 극대화' 인 것을 고려할 때, 기업 내부나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재무상태표로부터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항목에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반응

- (주)세연컴퍼니의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20×1년 1월 한 달 동안 310만원만큼 **성과**를 거두었다는 정보를 알 수 있음
- (주)세연컴퍼니에서 20×1년 1월 중에 두 번 벌어서 늘어난 몫이 늘어나고, 한 번 벌어서 늘어난 몫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벌어서 늘어난 몫이 1월 초의 0원으로부터 1월말의 310만원으로 310만원만큼 증가한 성과
- “**재무상태표**에서도 이렇게 **성과**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복잡하게 **다른 재무제표**를 또 만들어서 보아야 하나?”

- 경영자를 포함해서 기업의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은 '벌어서 늘어난 뭉'의 증가와 감소에 관심을 가지고 '벌어서 늘어난 뭉'의 증가와 감소를 좀 더 세부적인 정보로 구분하고자 하는 욕구
- 기업의 자원에 대한 경영자의 수탁책임을 평가할 때에 기업의 성과가 관련되는 경우가 대부분
- 회계전문가들은 일정 기간 동안의 '벌어서 늘어난 뭉'의 증가와 감소, 다시 말해서 기업의 성과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해서 구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음

- '벌어서 늘어난 몫'이 **증가**하는 것을 '**수익**'이라고 표시하고,  
'벌어서 늘어난 몫'이 **감소**하는 것을 '**비용**'이라고 표시

1월 30일의 재무상태표

비 용	170만원	수 익	480만원
(벌어서 늘어난 몫의 감소 의미)		(벌어서 늘어난 몫의 증가 의미)	

출처 : 기업정보와 회계(2022), 창민사

- 20×1년 1월 중에 두 번에 걸쳐 벌어서 늘어난 몫이 늘어난 480만원을 수익으로 표시하고, 한 번 벌어서 늘어난 몫이 줄어든 170만원을 비용으로 표시

- 수익과 비용의 차이로부터 기업의 늘어난 몫, 다시 말해서 기업의 성과가 310만원이라는 정보를 알 수 있게 됨

1월 30일의 재무상태표

비 용	170만원	수 익	480만원
(벌어서 늘어난 몫의 감소 의미)		(벌어서 늘어난 몫의 증가 의미)	

출처 : 기업정보와 회계(2022), 창민사

- (주)세연컴퍼니의 벌어서 늘어난 몫이 480만원만큼 증가하고, 같은 기간 동안 170만원만큼 감소하였으니 결과적으로는 310만원이 순증가한 것임



- 성과 관련 충분한 정보를 위해 벌어서 늘어난 몫의 증감을 의미하는  
수익과 비용 정보를 좀 더 세분화시킴
- 수익과 비용을 각각 기업의 영업과 관련된 수익과 관련이 없는 수익,  
그리고 기업의 영업과 관련된 비용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구분
- 기업의 영업이 의미하는 바는 해당 기업의 주된 목적사업을  
의미하는데 (주)세연컴퍼니의 경우를 보면 (주)세연 컴퍼니는  
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

- 컨설팅 용역 대가 450만원은 **영업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**이 되지만, 주식을 매각하면서 벌어들인 30만원은 주된 목적사업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으로 볼 수 없을 것임
- 나신뢰 씨에게 지급한 급여 170만원은 컨설팅사업을 영위하면서 **수익을 얻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'벌어서 늘어난 몫'의 감소**이므로 **영업과정에서 발생한 비용**이라고 볼 수 있음

## 수익과 비용\_영업과 비영업

비용('벌어서 늘어난 몫'의 감소)		수익('벌어서 늘어난 몫'의 증가)	
영업비용(주된 목적사업과 관련O)	170만원	영업수익(주된 목적사업과 관련O)	450만원
비영업비용(주된 목적사업과 관련X)	0만원	비영업수익(주된 목적사업과 관련X)	30만원

출처 : 기업정보와 회계(2022), 창민사

- 수익과 비용을 **주요 목적사업과의 관련 여부에 따라 구분** 함에 따라 **더 많은 정보**를 제공하게 됨
- (주)세연컴퍼니는 1개월 동안 주요 목적사업에서 280만원 (450만원-170만원)을 벌었고, 목적 사업 이외의 활동으로부터 30만원을 벌어들였다.

- 지금까지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판단할 때  
(주)세연컴퍼니가 2월에는 310만원과 280만원 중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는가?
-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합리적인 금액은 280만원임
  - 주요 목적사업의 경우에는 (주)세연컴퍼니가 운영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,  
주요 목적사업 이외의 활동들은 이후 회계 기간에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



## 5주차 2차시

### 손익계산서의 구조와 내용 I



- **영업수익**, 다시 말해서 주된 **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익**을  
**‘매출액’**이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표시
-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이라는 계정이 나오면 이것은  
영업수익, 즉 영업과 관련하여 벌어서 늘어난 몫이  
증가한 것을 의미

- **영업비용**, 다시 말해서 주된 목적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크게 '**매출원가**'와 '**판매비와 관리비(이하 판관비)**'라는 두 가지 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
- 기업의 영업은 일반적으로 구매, 생산, 판매, 관리 등의 세부 영업기능으로 구분
  - **매출원가**: 구매와 생산 기능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
  - **판관비**: 판매와 관리 기능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
  - 제조기업, 상기업, 서비스기업에 따라 구성 상이함

- 비용, 즉 벌어서 늘어난 몫의 감소를 영업비용과  
영업외비용으로 구분하였는데, 실제로는 영업비용 및  
영업외비용과 구분되는 다른 특성의 비용인 **법인세비용**이 있음
- **기업(법인)이 납부하는 법인세**는 소득이 영업활동에  
기초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고,  
기업의 규모나 국적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므로,  
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과는 별도로 법인세비용이라는  
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함

## 손익계산서 1

## 손익계산서

(주)세연컴퍼니

20X1.1.1.~20X1.1.31.

비용(벌어서 늘어난 몫의 감소)		수익(벌어서 늘어난 몫의 증가)	
영업비용	170만원	매출액(영업수익)	450만원
매출원가	0만원		
판매비와 관리비	170만원	영업외수익	30만원
영업외비용	0만원		
법인세비용	0만원		

출처 : 기업정보와 회계(2022), 창민사

- 수익(profit)은 벌어서 늘어난 몫의 증가를 의미 하는데, 벌어서 늘어난 몫이 증가할 때 대변에 적어준 것과 같이 수익 관련 항목(계정)들은 대변에 적어주게 됨
- 영업수익을 매출액이라고 표시하기로 했으므로 매출액으로 450만원을 기록
- 영업외수익으로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 발생한 30만원을 기록하면, 20×1년 1월 중 벌어서 늘어난 몫의 증가를 수익으로 정리한 것임



- **비용(cost)은 벌어서 늘어난 몫의 감소를 의미하는데,**  
벌어서 늘어난 몫이 감소할 때 차변에 적어준 것과 같이,  
**비용 관련 항목(계정)들은 차변에 적어주게 됨**
- **영업비용을 매출원가,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**  
**구분하기로 하였으니 두 가지 영업비용 항목을**  
**적어주었음**

- (주)세연컴퍼니가 서비스기업이므로 매출원가는 발생하지 않고, 급여 지급액 170만원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기록하면 해당 금액이 곧 (주)세연컴퍼니의 영업비용 금액이 되는 것임
- 영업외비용과 법인세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음
- 그런데 상기 손익계산서에서 1월의 성과 (벌어서 늘어난 몫의 증가액) 총액인 310만원, 그리고 영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, 즉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부터 280만원의 성과에 대한 내용과 정보가 한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

## 손익계산서 1

(주)세연컴퍼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손익계산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X1.1.1.~1.31.

매출액(영업수익)	450만원
(-) 매출원가	0원
매출총이익	450만원
(-) 판매비와 관리비	170만원
영업이익	280만원
(+) 영업외수익	30만원
(-) 영업외비용	0원
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	310만원
(-) 법인세비용	0원
당기순이익	310만원

출처 : 기업정보와 회계(2022), 창민사

- 각 구간별 부분 금액을 산출하여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제공
- 매출액(영업수익)에서 매출원가(영업비용)를 차감한 값을 **매출총이익(gross profit)**이라고 함
  -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 판매하여 수령한 대가에서 물건 구입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  
(450만원 - 0 = 450만원)

-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(영업비용)  
(selling, general, and administrative expenses)를  
차감한 값을 **영업이익(operating profit)**이라고 함
  - 기업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나타난 성과를 의미  
(450만원 - 170만원 = 280만원)



- 영업이익으로부터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 
가감하면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단계의 성과인  
**법인세차감전순이익**이 됨
- (280만원 + 30만원 - 0 = 310만원)

-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부터 법인세비용을 차감하면 **당기순이익(net income)**이 나오게 됨
  - 이 금액이 당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**‘벌어서 늘어난 몫’의 최종 증가금액(변동분)**, 즉 당기의 최종적인 **성과**를 의미  
(310만원 - 0 = 310만원)

## 손익계산서 1

<u>손익계산서</u>	
(주)세연컴퍼니	20X1.1.1.~1.31.
매출액(영업수익)	450만원
(-) 매출원가	0원
매출총이익	450만원
(-) 판매비와 관리비	170만원
영업이익	280만원
(+) 영업외수익	30만원
(-) 영업외비용	0원
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	310만원
(-) 법인세비용	0원
<b>[당기순이익]</b>	310만원

출처 : 기업정보와 회계(2022), 창민사

- 손익계산서의 **출발**은 일정 기간 동안의 '벌어서 늘어난 몫'의 변동(증가 또는 감소), 즉 **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세분화하는 것**
- 손익계산서 최종 하단에서 보게 되는 '**당기순이익**'은 당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'**벌어서 늘어난 몫**'의 **순증가분(증가-감소)**을 의미



5주차 3차시

손익계산서의 구조와 내용 II

- 주주 몫의 증가나 감소를 나타낼 때에 재무상태표에서 '벌어서 늘어난 몫'이라는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'성과'를 산출

1월 30일의 재무상태표

재무상태표			
(주)세연컴퍼니		20X1.1.30.	
자 산		부 채	
현 금	1,360만원	은행차입금	1,050만원
주 식	0만원	자 본	
임차보증금	300만원	설립자본	1,000만원
자동차	700만원	벌어서 늘어난 몫	310만원
자산 합계	2,360만원	부채와 자본 합계	2,360만원

출처: 기업정보와 회계(2022), 창민사

- 주주 몫의 증가나 감소를 나타낼 때에 재무상태표에서 '벌어서 늘어난 몫'이라는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'성과'를 산출
  - 재무상태표 등식(자산 = 부채 + 자본)을 지키면서 당기의 성과인 '벌어서 늘어난 몫'의 순증액(순증가 금액)을 구해야 했음
  - '벌어서 늘어난 몫'의 변동(증가 또는 감소)이 가지는 세부적인 의미도 찾아내야 하였음

- 회계기간의 말에 '벌어서 늘어난 몫'의 변동(310만원)으로부터 '벌어서 늘어난 몫'의 증가(480만원)와 감소(170만원)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다시 파악
- 손익계산서에서 이를 영업수익, 영업외수익, 영업비용(매출원가, 판관비), 영업외비용, 그리고 법인세비용으로 구분
  -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



- 최초 분개를 할 때에 '벌어서 늘어난 몫'의 변동(증가 또는 감소)을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으로 각각 구분하여 '벌어서 늘어난 몫'(자본) 계정을 분개하던 자리에 수익과 비용 항목을 기록
- 분개 시 기록된 수익과 비용 항목을 재무상태표가 아닌 손익계산서에서 먼저 정리

- 이어서, 당기에 '벌어서 늘어난 몫'이 증가한 최종 순증가 금액 (증가금액-감소금액)을 의미하는 당기순이익 금액을 다시 재무상태표의 '벌어서 늘어난 몫' (자본)계정으로 가져오는 참신한 방법을 개발

## ● 기존의 방법에 따른 순서

'벌어서 늘어난 몫'의 증가와 감소를  
모두 '벌어서 늘어난 몫' (자본)계정으로 분개



재무상태표 상 '벌어서 늘어난 몫'의 최종 순증가 금액 산출



산출된 '벌어서 늘어난 몫'의 순증가 금액을  
수익과 비용으로 세분하여 손익계산서 작성

## ● 새로운 방법에 따른 순서

“벌어서 늘어난 몫”의 증감을 세분화된  
수익과 비용 계정으로 분개



손익계산서 작성



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 금액을 이용해서 재무상태표 상  
‘벌어서 늘어난 몫’(자본)의 최종 순증가 금액 산출

- 새로운 방법에 따른 순서

- 결과는 동일하지만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'벌어서 늘어난 몫'(자본)의 변동(증감)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회계기간 말 손익계산서 작성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다시 파악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참신한 방법

## ● 새로운 방법에 따른 분개(미니재무상태표)의 실시

1월 2일의 분개(미니 재무상태표)

현금	500만원(자산의 증가)	=	은행차입금	500만원(부채의 증가)
--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	---------------

1월 5일의 분개(미니 재무상태표)

자동차	700만원(자산의 증가)	=	현금	700만원(자산의 감소)
-----	---------------	---	----	---------------

1월 10일의 분개(미니 재무상태표)

은행차입금	150만원(부채의 감소)	=	주식	150만원(자산의 감소)
-------	---------------	---	----	---------------

## 1월 15일의 분개(미니 재무상태표)

현금	450만원(자산의 증가)
----	---------------

=

매출액(영업수익)

450만원
(벌어서 늘어난 몫의 증가)

## 1월 25일의 분개(미니 재무상태표)

판매비와 관리비 (영업비용)
--------------------

170만원
(벌어서 늘어난 몫의 감소)

=

현금

170만원
(자산의 감소)

## 1월 30일의 분개(미니 재무상태표)

현금

280만원
(자산의 증가)

=

주식
영업외수익

250만원(자산의 감소)
30만원
(벌어서 늘어난 몫의 증가)

## 손익계산서

(주)세연컴퍼니

20X1.1.1.~1.31.

<b>매출액(영업수익)</b> ➡ 벌어서 늘어난 몫 증가	450만원
(-) 매출원가	0원
매출총이익	450만원
(-) <b>판매비와 관리비</b> ➡ 벌어서 늘어난 몫 감소	170만원
영업이익	280만원
(+) <b>영업외수익</b> ➡ 벌어서 늘어난 몫 증가	30만원
(-) 영업외비용	0원
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	310만원
(-) 법인세비용	0원
당기순이익	310만원

'벌어서 늘어난 몫'의 증감에  
해당하는 손익 항목을  
이용하여 재무상태표보다  
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함



- **벌어서 늘어난 몫(의 증감)**은 1월 중 해당 계정을 이용한 분개의 결과가 아니라 수익과 비용 항목의 분개 후 작성된 **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금액이 옮겨오게 됨**

## 재무상태표

(주)세연컴퍼니

20X1.1.31.

자 산		부 채	
현 금	1,360만원	은행차입금	1,050만원
주 식	0만원	자 본	
임차보증금	300만원	설립자본	1,000만원
자동차	700만원	벌어서 늘어난 몫 (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금액)	310만원
자산 합계	2,360만원	부채와 자본 합계	2,360만원

출처 : 기업정보와 회계(2022), 창민사

-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20×1년 1월 말에 재무상태표에서 나타나는 '벌어서 늘어난 몫'의 순증액(당기 변동금액)은 대변 310만원으로 동일
  - 그 이유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순서가 일부 변하였을 뿐 그 안의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

- 분개 시에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항목인 수익과 비용이 등장하면서,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자산, 부채, 자본 항목과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수익, 비용 항목이 마치 상호 독립적으로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해될 가능성

- 모든 분개는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며, 동시에 재무상태표 등식을 충족함

- 단지, 그 가운데 '벌어서 늘어난 몫'의 당기 증감, 즉 당기의 성과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구별하여 모아서 별도로 상세한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과정이 추가되었을 뿐임



## 5주차 4차시

### 손익계산서 정보와 의사결정

- **(주)성실상사 vs (주)근면물산 손익계산서 비교**
  - 다음은 주된 영업분야와 재무상태가 유사한 (주)성실상사와 (주)근면물산의 20×1 년 손익계산서 자료임
  - 손익계산서 정보를 활용하여 두 기업 가운데 한 기업에 투자를 할 예정임
  - 당신은 어떤 기업에 투자하겠는가?

<u>손익계산서</u>	
(주)성실상사	20X1.1.1.~12.31.
매출액(영업수익)	10,000
(-) 매출원가	4,000
매출총이익	6,000
(-) 판매비와 관리비	3,500
영업이익	2,500
(+) 영업외수익	5,000
(-) 영업외비용	0
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	7,500
(-) 법인세비용	0
당기순이익	7,5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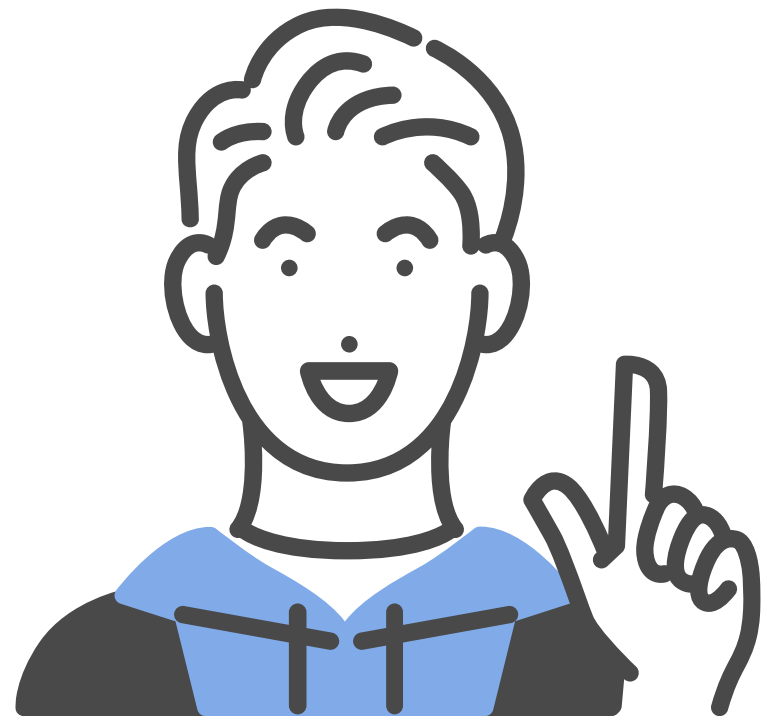
<u>손익계산서</u>	
(주)근면물산	20X1.1.1.~12.31.
매출액(영업수익)	10,000
(-) 매출원가	5,000
매출총이익	5,000
(-) 판매비와 관리비	1,200
영업이익	3,800
(+) 영업외수익	0
(-) 영업외비용	1,100
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	2,700
(-) 법인세비용	0
당기순이익	2,700

- 두 기업의 매출액(영업수익)이 동일한 상황에서  
(주)근면물산의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 
더 낮은 금액을 나타내고 있음
- 이에 따라 **영업이익**이 (주)성실상사보다 1,300원  
**더 높은 것**을 볼 수 있음
- **영업활동에서의 성과 측면**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 
(주)근면물산이 (주)성실상사보다 **더 지속적인 경제적 효용을**  
**가져올 것으로 예상**할 수 있음



- (주)성실상사는 20×1년에 5,000원의 영업외수익,  
(주)근면물산은 20×1년에 1,100원의 영업외비용이  
발생함에 따라 최종적인 당기순이익은 (주)성실상사가  
(주)근면물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

(주)성실상사가 당기순이익이 높아서 좋기는 한데,  
올해 영업하고 그만할 것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보아야 해.  
그런 면이라면 당연히 **장기적 측면**에서 **영업이익**이 높은  
(주)근면물산에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아!



(주)성실상사가 매출원가, 그리고 매출총이익 측면에서는  
(주)근면물산보다 더 성과가 좋은데, 판매비와 관리비가  
상대적으로 더 높네.

두 기업이 주된 영업분야도 유사하다는데 두 기업 사이에  
판매비와 관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지?



앞으로 (주)성실상사의 **판매비와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다면**  
장기적으로는 (주)성실상사의 성과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 
같기도 하고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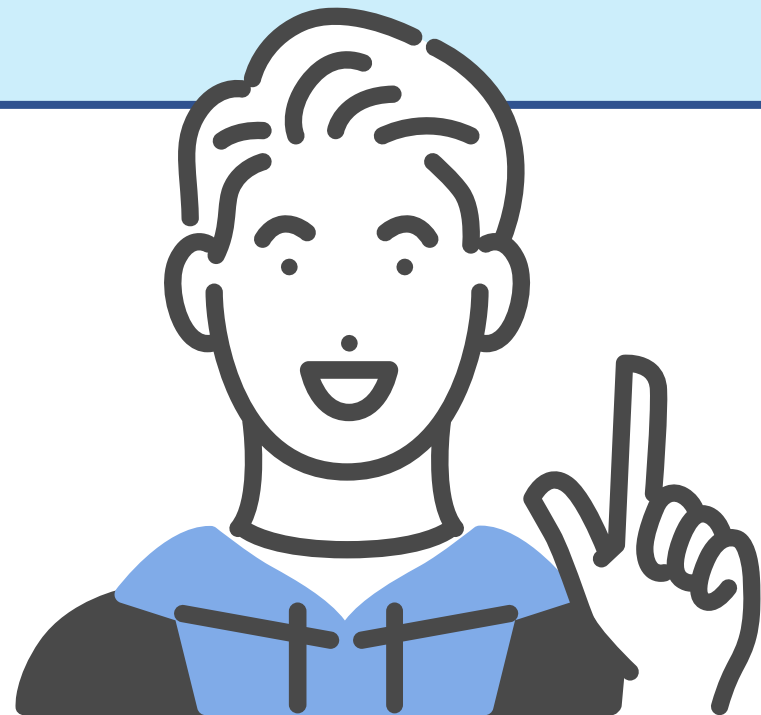
● 만약 20X0년의 **정보(성과)**를 추가적으로 알 수 있다면?

손익계산서	
(주)성실상사	20X0.1.1.~12.31.
매출액(영업수익)	9,500
(-) 매출원가	3,900
매출총이익	5,600
(-) 판매비와 관리비	3,500
영업이익	2,100
(+) 영업외수익	0
(-) 영업외비용	0
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	2,100
(-) 법인세비용	0
당기순이익	2,100

손익계산서	
(주)근면물산	20X0.1.1.~12.31.
매출액(영업수익)	14,000
(-) 매출원가	7,000
매출총이익	7,000
(-) 판매비와 관리비	1,100
영업이익	5,900
(+) 영업외수익	1,200
(-) 영업외비용	0
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	7,100
(-) 법인세비용	0
당기순이익	7,100

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. 20×1년도 정보에서(주)성실상사가 좋게 보였던 것은 높은 영업외수익 덕분에 당기순이익이 높게 나왔던 것 때문이었는데, 영업외수익 효과가 없어지니까 (주)근면물산이 성과가 좋은 기업이라는 걸 당장 알겠구나!

역시 재무상태도 그렇고 성과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보아야 한다니까!



당기순이익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영업활동의 결과인 **영업이익을**  
**의사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**해야겠어.

그런데 (주)근면물산의 **매출액**이랑 **영업이익**이 20×0년보다  
20×1년에 왜 이렇게 크게 **감소**한 거지?



- 단일의 정답은 없음

- 당신이 앞서 살펴본 손익계산서 정보가 당신의 투자의사결정에 크든 작든 어떤 식으로라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?
- 그렇다면 회계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,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손익계산서를 포함하는 재무제표의 제공이라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음



# 5주차 정리하기



## | 5주차 정리하기

- 기업의 성과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기 위해 **벌어서 늘어난 몫의 증가**를 **수익**으로, **벌어서 늘어난 몫의 감소**를 **비용**으로 구분하여 표시함
- 수익과 비용을 각각 기업의 **영업과 관련된 수익(영업수익)**과 **관련이 없는 수익(영업외수익)**, 그리고 기업의 **영업과 관련된 비용(영업비용)**과 **관련이 없는 비용(영업외비용)**으로 세분하여 표시함





## | 5주차 정리하기

-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**각 구간별 부분 금액을 산출하여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제공**



“벌어서 늘어난 몫”의 증감을 세분화된  
수익과 비용 계정으로 분개



손익계산서 작성



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 금액을 이용해서  
재무상태표 상 ‘벌어서 늘어난 몫’의 최종 순증가 금액 산출

